



중앙총무기관의
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한

종단 조직 개편



종단 미래를 여는 조직 혁신이 시작됩니다.

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.

급변하는 시대, 종단의 존립과 생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.

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

- 민주적인 종무행정의 기틀 마련
- 종단 안정
- 종무행정의 전문화 및 분야 확대
- 교육원, 포교원의 별원화 이후 성과 : 신도 조직화, 계층 포교 활성화
체계적인 승가 교육 제도 마련, 전문적인 승려 연수 등

급변하는 현 사회

- AI(인공지능),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, 인구감소 그리고 탈 종교화
- 현재 교육원과 포교원 별원 구조는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책 시행에 대한 종단적 집중력이 미약함

대응 방향

- 보다 집중된 전법 조직 시스템 구축
-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 교육시스템 구축
 - ▶ 승가 교육과 포교는 종단의 궁극적 목표이며 존재 이유로 단일화된 대책 수립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
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 포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.

전법은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입니다. 전 종단적 진력이 필요합니다.

기존 포교행정 범위를 넘어 종단 전체의 전법포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포교 신도단체 집중관리 실현

- 전국의 포교 · 신도 · 신행 600여(지부, 지회 포함) 단체의 지원 관리를
종무기관별로 분담하여 담당하고, 교구본사 및 사찰과 함께 지원 ·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.
- 집행부 전체 조직 체계와 어울려 전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갑니다.

출가자 감소 시대, 전문 역량을 갖춘 승려가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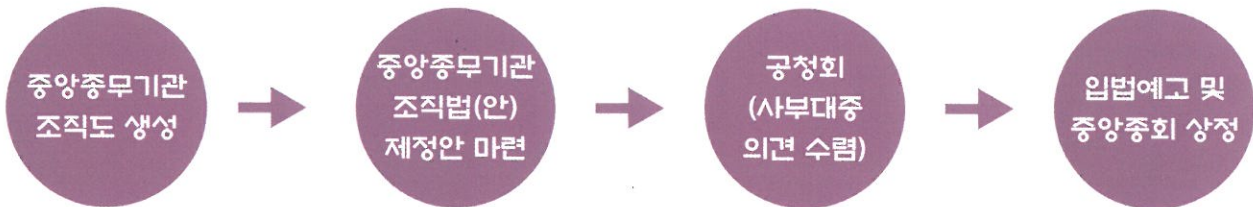
- 출가자 급감으로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이 줄어듭니다.
- 새로운 시대, 사회와 소통하며 수행을 지도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승가가 필요합니다.
- 보다 전문화된 승가교육과 교무관리, 출가 장려, 복지 등 승가 전반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종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
- 현 종단 시스템은 스님들의 수행관리에 있어 교구본사, 총무부, 교육원 등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
- 종단 미래를 여는 조직개편으로 스님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일원화, 전문화, 집중화됩니다.

미래 불교를 향한 종무 조직으로 제2의 종단개혁을 이룹니다.

- 총무원, 교육원, 포교원 일원화로 종무행정 역량을 집중·강화합니다.
- 불학연구소, 포교연구실,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여 종단의 미래를 만드는 통합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.
- 종단의 씽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.
- 신도 신행 생활, 단체 활동 등 전반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통합 조직으로 재개편합니다.
- 문화, 복지, 대사회, 대정부 관련 기능을 보다 전문화합니다.

향후 조직 개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

- 중앙종무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을 종법에 규정하여 조직 개편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종헌 개정 : 총무원, 교육원, 포교원 일원화
 - 향후 종법 제·개정 절차



사부대중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종무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불기2568(2024)년 3월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·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

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·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